

# DBpia

## 총론 : 설화로 본 고대 습속(習俗)의 원형과 변형, 성과 속

General remarks : Conventions(習俗) – Original forms and Variations, viewed through tales and stories, with the issue of “the sacred and the mundane” in mind

---

저자 (Authors)	박미선 Park Mi-sun
출처 (Source)	<a href="#">역사와현실 , (106)</a> , 2017.12, 25-35 (11 pages) <a href="#">YŎKSA WA HYŎNSIL :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 (106)</a> , 2017.12, 25-35 (11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역사연구회</a> The Organization Of Korean Historians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86285">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86285</a>
APA Style	박미선 (2017). 총론 : 설화로 본 고대 습속(習俗)의 원형과 변형, 성과 속. 역사와현실, (106), 25-3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24 16:2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총론 : 설화로 본 고대 습속(習俗)의 원형과 변형, 성과 속

박 미 선\*

1. 설화, 역사로 끌어안기
2. 고대 습속의 원형과 변형으로서 성과 속
3. 개별 연구의 내용과 의미

이번 공동연구는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 습속연구반(이하 습속반) 소속 연구자들이 기획하였다. 습속반은 한국의 습속, 즉 종교와 신앙, 풍속 등의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학습하고 연구할 목적으로 2002년에 만든 연구반이다. 꾸준히 고대 습속 관련 자료들과 논문들을 함께 검토하였고 그 결과물로 2009년에는 “『삼국유사』를 통해 본 고대의 종교와 신앙”으로, 2012년에는 “한국 고대의 축제”라는 주제로 이미 두 차례 공동연구발표회를 가진 적이 있다. 이후 연구원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서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자료 강독 중심에서 벗어나 역사 관련 인접 학문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였다. 여행기, 중세 기술과 사회변화, 지리, 문명

\* 대림대학교 시간강사

대표논저: 2016 「신라 헌안왕의 선종 정책 -「보림사 보조선사창성탑비」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0 : 2016 「一然의 國王觀 -『三國遺事』 「紀異」편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 33

등 다양한 주제의 저서들을 접하면서 연구 내용과 방법에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공동연구발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학습 내용을 발표 주제로 발전시키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기존 학습과 관련 인접 학문과의 연계라는 점에 중점을 둔 결과 자연히 ‘설화’에 주목하게 되었다. 설화는 일찍이 습속 관련 자료 검토 과정에서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왔고, 국문학·인류학 등 인접 학문의 연구 성과도 축적되어 있어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습속반에서는 ‘설화’를 통해 고대의 습속, 습속의 원형과 전승, 그리고 거기에 투영된 당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고찰해 보기로 하였다.

## 1. 설화, 역사로 끌어안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각각 혁거세신화와 단군신화로 시작하며 많은 설화들을 수록하고 있다. 심지어 『삼국유사』는 설화집으로 이해하기도 한다.<sup>1)</sup> 이 사서들을 기본 텍스트로 하는 고대사 연구에서 신화와 설화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비롯하여 고대국가의 성립 문제가 일찍부터 주목되었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화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물론 『삼국유사』에 수록된 설화를 통해 고대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많은 성과를 올렸다.<sup>2)</sup> 그러나

1) 조동일, 1982 「삼국유사설화 연구사와 그 문제점」 『한국사연구』 38 ; 황패강, 1982 「삼국유사와 불교설화」 『삼국유사의 연구』, 중앙출판사 ; 장덕순, 1982 「삼국유사의 설화문학적 가치」 『삼국유사와 문학적 가치해명』, 새문사 등이 대표적이다.

2) 『三國遺事』의 편목·항목별 연구뿐 아니라 개별 설화에 대한 연구는 그 성과를 이루다 말할 수 없다. 기획 또는 공동연구의 형식으로 설화를 통한 고대사회를 고

기존 연구는 설화에서 ‘역사적 사실’과 허구(단순 이야기)를 분리하는데 집중하고, 설화 속 사건이나 상징을 정치적 변동<sup>3)</sup>이나 신앙의 양상을 검토하는<sup>4)</sup> 등에 한정하여 고찰하는 경향이 있었다. 오히려 국문학에서 설화 관련 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국문학에서는 설화의 서사구조 분석이나 상징의 의미에 집중된 면이 있어 역사상과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고자 하는 역사학의 연구와는 결이 다르다. 어떻게 역사학에서 설화를 사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근대 역사학은 실증주의 역사학으로 ‘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을 주창하며 이성적으로 믿기 어려운 신화·설화 등을 사료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현대 역사학은 ‘역사의 대상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 연구에서 객관성이란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공감대를 얻었고’, 역사는 과학보다 문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sup>5)</sup> 더불어 이야기체 역사의 부활, 이야기식(narrative) 역사서술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역사학의 흐름에 따라 설화는 사료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

찰한 것으로 『역사비평』 1993년 가을호(통권 24호)에 실린 ‘기획1 설화를 통해 본 한국고대의 사회변동’을 들 수 있다. 남동신의 「온달·서동 설화와 6세기 사회」와 김기홍의 「화랑도이야기와 7세기 신라사회」 두 논문을 실었다. 설화를 고대사 연구에 활용하는 방법 및 방향성을 제시해 준 글들이었으나, 두 편밖에 실리지 못한 것과 함께 설화의 활용이 인물과 새로운 세력의 활동 파악에 그친 것은 아쉬운 점이었다.

- 3)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도화녀 비형랑」설화(『三國遺事』卷1 紀異1), 「만파식적」설화(『三國遺事』卷2 紀異2 ; 卷3 塔像4 栢栗寺), 경문왕과 관련된 설화(『三國遺事』卷2 紀異2 四十八 景文大王) 등을 꼽을 수 있다.
- 4) 대표적으로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三國遺事』卷3 塔像4), 「廣德 嚴莊」(『三國遺事』卷5 感通7),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木」(『三國遺事』卷3 塔像4)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앙 행위와 미륵·미타·관음 등 신앙의 유행 및 변화양상을 설명한다.
- 5) 조지 이거스/임상우·김기봉 옮김, 1999 『20세기 사학사』, 푸른역사, 26쪽

주지하다시피 설화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겪은 특별한 일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타자가 공감·공유하며 전승되어 온 이야기이다. 한마디로 설화는 긴 생명력과 강한 전파력,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새롭게 변형·생성될 수 있는 가변성을 갖는다.<sup>6)</sup> 설화의 공유와 강한 전파(전승)력은 역사에서의 공간·시간과 상통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설화가 형성·전승하는 과정에 일정한 역사적 사실이 담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화자나 청중의 개입으로 인해 다양한 변형이 생겨날 수 있으며, 심지어 새롭게 재탄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변성으로 인해 설화 자체를 연대적으로 분석하여 역사적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기나긴 전승과정에서 다양한 변형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설화를 관통하는 공통 요소, 즉 ‘화소(motif)’가 있다. 그 화소 속에서 시대상과 역사적 사실 등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설화의 역사적 사료로서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가변성과 전승성을 고려할 때 설화에서 특정한 시기,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읽기보다 풍속이나 사상, 세계관과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을 읽어내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이 습속반에서 설화에 주목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설화는 민간에서 구비 전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왕·귀족뿐 아니라 평민, 노비 등 여러 계급·계층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로써 설화는 관변층 사료나 지배층 중심의 문헌사료가 가진 주체와 시각의 한계를 보충해 주어<sup>7)</sup> 보다 입체적·다각적으로 역사상을 그릴 수 있게 한다. 또한 인간 외에 동물, 귀(鬼), 신(神), 부처 등 다양한 존재들이 설화에 등장한다. 인간

6) 임재해는 설화 사료의 특징으로 가변성, 민중성, 전승성, 공감성, 확산성 등을 꼽았다(임재해, 2001 「설화의 사료적 성격과 새 역사학으로서 설화연구」 『역사민속학』 12).

7) 설화는 관변층 기록과 지배층 사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중사료라는 관점에서 주목되고 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임재해, 2000 「설화 자료에 의한 역사연구의 방법 모색」 『설화와 역사』, 집문당, 34쪽).

과 이들 존재와의 관계는 당대 사람들의 인식과 세계관을 잘 보여준다. 그 결과 설화는 정치사에서 생활사, 문화사, 여성사, 지역사 등 연구 영역의 확대에 기여한다.

이처럼 설화를 역사에서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확신 하에, 각자 개별 설화를 구체적인 사료와 전거로 삼아 분석하기로 하였다. ‘한씨 미녀 설화’, ‘도화녀 비형랑’, ‘옥면 설화’, ‘김현감호’ 설화를 선택하여, 이들 설화의 역사적 변모를 추적하고, 화소를 찾아 고대 습속의 원형과 변형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sup>8)</sup>

그러나 설화의 특징인 가변성과 전승성은 설화를 사료로서 이용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보다 엄격한 사료 비판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선 같은 유형의 설화라 할지라도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버전이 존재한다. 가능한 많은 버전들을 수집해야 하고, 이 버전들의 선후관계를 밝혀야 설화의 원형에 접근이 가능하다. 그 원형 속에서 설화가 만들어 지던 때의 시대상과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전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설화로만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료들과 역사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본 공동연구에서는 후대 전승된 문헌 자료와 구비 전승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비교·검토하였다. 한씨 미녀 설화의 경우 『삼국사기』 지리지에도 등장하지만, 『조선상고사』에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기존에는 잘 활용하지 않았지만, 설화 자료와 출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고구려 혼인풍속을 보여주는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나머지는 『삼국유사』에 실린 설화이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동경잡기(東京雜記)』 등의 조선시대 설화집 및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

8) ‘설화의 역사적 연구’와 ‘역사학으로서 설화연구’로 구별하기도 한다(임재해, 2001, 앞의 논문). 그러나 설화를 사료로 활용함에 사료비판이 가해져야 하고, 설화에 대한 사료비판은 곧 ‘설화의 역사적 연구’라고 생각한다.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 『왕생전(往生傳)』 등의 기록에도 전하고 있어 이들 설화를 상호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이 설화들의 사료적 가치를 먼저 검토하고, 이어서 설화의 형성·전승 과정, 원형과 변형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 등을 고찰하였다.

## 2. 고대 습속의 원형과 변형으로서 성과 속

고대사 연구의 어려움은 사료의 부족에 있다. 이에 문헌사료 외에 발굴에 의한 물질사료와 현장 탐방을 통한 구전사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 이와 함께 고대사 연구에서는 새로운 연구 방법이나 이론의 적용, 또는 인접 학문과의 연계 등을 모색해 왔다. 이런 점에서 ‘설화’는 국문학·인류학·철학·종교학 등 타 학문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어 학문간·학제간 교류가 가능한 연구 대상이자 새로운 이론의 적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엘리아데의 ‘성(聖)과 속(俗),<sup>9)</sup> 레비 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sup>10)</sup> 나카자와 신이치의 ‘대칭성 인류학’<sup>11)</sup> 등은 신화나 설화의 적극적인 분석의 결과 도출된 개념이자 이론들이다. 본 공동연구에서는 개별적·단편적 역사적 사실보다 세계관 등의 사고의 흐름을 읽어보고자 하는 바, 이러한 이론들이 설화를 통한 고대사회 연구에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이번 공동연구에서는 ‘성과 속’의 용어에 주목하였다. 엘리아데는 세계 안에 있는 두 가지 존재 양식이자 인간이 역사의 흐름 속에 형성해

9) M. 엘리아데 지음/이은봉 옮김, 1998 『성과 속』, 한길사

10) 레비 스트로스 지음/안정남 옮김, 1996 『야생의 사고』, 한길사

11) 나카자와 신이치 지음/김옥희 옮김, 2003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동아시아 ; 2005 『대칭성 인류학』, 동아시아

은 두 가지 생존 양식을 성(聖)과 속(俗)이라 하였다. 성은 보이지 않지만 자연물을 통해 현현하는 성을 숭배하게 되며, 따라서 성과 속은 영원불변이 아니라 가역적이라 하였다.<sup>12)</sup>

본 공동연구에서는 가역적 성과 속에 주목하여 이 용어를 차용하면서 여기에 성(性)을 덧붙여 설화를 고찰하였다. 이야기 중에 가장 흔하면서 흥미로운 것은 ‘사랑이야기’이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설화들에도 ‘사랑이야기’가 바탕에 깔려 있다. 당연히 그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서술되어 있다. 인간의 본성 또는 욕망인 ‘성(性)’으로서 사랑과 그에 따른 행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 아니라 타(他)세계의 존재, 즉 호랑이·귀(鬼)·부처와 같은 존재와의 관계에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인간의 ‘성(性)’이 행위나 관계 속에서 ‘성(聖)’ 또는 ‘속(俗)’으로 표출되면서 성(性)·성(聖)·속(俗)이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남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 성·성·속은 설화에 담긴 고대인의 세계관을 반영하기도 하고, 습속의 형성과 변화 과정 및 성격을 정의하는 개념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본 공동 연구는 ‘설화로 본 고대 습속의 원형과 변형, 성과 속’을 주제로 삼았다. 여기서 성과 속은, 성(性)과 속(俗) 또는 성(聖)과 속(俗) 등 복합적 의미가 담겨 있어 한자가 아닌 한글로 표기하였다.

설화에 반영된 세계관의 고찰에서는 나카자와 신이치의 『대칭성 인류학』,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등을 참고하였다. 나카자와는 대칭성이란 성과 속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무의식의 자유로운 유동성을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신화를 꼽았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비대칭성으로 권력과 국가의 등장 이후 차이와 차별이 강조되는 사회의 특징으로 설명하였다. 본 공동 연구에서 다루는 설화는 모두 국가 성립 이후의 것으로 나카자와의 분류에 따르면 비대칭 사회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칭성·비대칭성으로 접근하기보다 각각 대표하는 신화적 세계관과 종교

12) M. 엘리아데 지음/이은봉 옮김, 1998 앞의 책, 51쪽

적 세계관이 설화 속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고대인은 어떤 인식과 세계관을 가졌는지 살펴보았다.

### 3. 개별 연구의 내용과 의미

본 공동연구는 4편의 논문으로 구성하였다. 각 주제는 한 편의 설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가능한 한 나라와 시기를 안배하려 했으나 현존하는 설화들 중 신라 설화가 월등히 많아 고구려 설화 1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3편의 논문이 신라 설화를 바탕으로 한다. 백제와 가야가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한씨 미녀 설화의 주인공 한씨가 백제인으로 논문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혼속 비교가 일부 이루어질 것이므로 백제가 빠진 아쉬움을 채워줄 것이다. 두두리 설화의 경우 신라의 「도화녀 비형량」설화에서 출발하였으나 이것이 고려에 어떻게 변형·전승되었는지를 다루어 본 공동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확대시켜 줄 것이다. 개별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지영의 「고구려의 혼속 -한씨 미녀 설화를 중심으로-」에서는 백제 한씨 미녀와 고구려 안장왕(519~531년 재위)의 사랑이야기를 중심 소재로 삼았다. 이 설화의 무대는 현재 경기도 일산의 고봉산(행주산성)으로 비정되어 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문제와 관련 주목되기도 한다.

이 설화는 『삼국사기』 지리지에도 언급은 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 실려 있다. 『조선상고사』에서 『해동잡록』을 출전으로 밝히고 있으나 현존하지 않아 사료로서의 문제가 일찍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자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사료로서 적극 활용해보았다. 이 설화에 보이는 혼례는 고구려의 서옥제의 혼속을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에 설화 속 혼례를 중국 정사류에 서술된 고구려 혼속과 비

교하여 고구려 혼속의 변화 내용과 변화 시기를 고찰하였다. 고구려와 백제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고구려인과 백제인의 국경을 넘는 사랑, 특히 왕의 사랑과 혼인이라는 특수한 사항이 고구려의 혼속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엿볼 수 있다.

**윤성재의 「제자리를 떠난 지역신 -동경(東京) 두두리(豆豆里)를 중심으로」**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도화녀 비형랑」 설화를 고찰 대상으로 삼았다. 문신(門神)으로 좌정한 비형랑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동경 두두리라는 이름을 가진 목랑의 형태로 경주지역에서 섬겨지고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 과정과 원인을 살펴보았다.

고려 무신집권기 경주 출신 권력자 이의민(李義旼, ?~1196)이 자신의 세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의 토착신을 수도인 개경으로 끌어올려 이용했으나, 권력자의 몰락과 함께 중앙에서는 물론 신앙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다. 결국 이 설화는 지역 토착신이 권력자의 권력에 기대어 상경을 시도했다가 좌절되는 형태이며, 권력자의 몰락 이후 지역에서도 배제되는 소멸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 토착신의 변천과 소멸 과정을 권력자의 득세와 몰락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성스러움의 형성 과정 뿐 아니라 속된 것으로의 변질, 그리고 소멸이라는 성(聖)과 속(俗)의 가역성을 엿볼 수 있다.

위 두 논문은 각각 경기도 일산과 고려시대 동경 및 개경을 무대로 혼속과 신격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설화 속 지역, 공간이 성·속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공통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현주의 「신라 ‘여인왕생’의 인식과 의미 -『삼국유사』 「옥면비염불서승」조를 중심으로-」**에서는 『삼국유사』 감통편에 실려 있는 옥면 설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옥면 설화는 계집종인 옥면이 염불을 통해 극락왕생을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설화와 관련하여 『삼국유사』에 <향전>, <승전>, <징본전> 등의 3가지 저본이 모두 실려 있는데, 각각이 전하는 내용

도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과 『왕생전』 등에서도 옥면 설화를 전하는데, 이들 기록들도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각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옥면 설화를 신고 있는 사료를 분석하여 역사적인 사실을 추출하고, 노비이자 여성인 옥면의 왕생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세속적 존재의 성스러운 존재로의 변신, 속(俗)에서 성(聖)으로의 변화와 그에 대한 신라인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 박미선의 「『김현감호』설화의 전승과 신라인의 세계관」에서는 『삼국유사』 감통편에 실려 있는 김현과 호랑이처녀의 설화를 고찰 대상으로 삼았다. 「김현감호」설화는 인간 남성 김현(金現)과 호랑이처녀라는 이류(異流)간의 사랑을 중심으로 호랑이의 희생과 김현의 출세, 그리고 호랑이에 대한 추모를 이야기의 기본 구조로 한다. 이와 유사한 설화가 『대동운부군옥』 『동경잡기』 등 문헌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 구비 전승되고 있다. 이들 문헌설화와 구비설화를 비교하여 「김현감호」설화의 원형과 변형을 고찰하고, 설화의 형성 시기와 관련하여 설화의 시대 배경인 원성왕대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설화 속에 녹아있는 이류간의 사랑, 희생, 탐돌이, 사찰 건립 등을 통해 신라인이 신화적 세계관과 불교적 세계관을 모두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류간의 사랑이라는 성(性) 또는 속(俗)이 탐돌이, 희생과 추모라는 성스러운 행위로 변하게 되는 원인으로 부처의 감응이라는 성(聖)의 인식도 읽어볼 수 있다.

이상의 논문은 『삼국유사』에 실린 신라의 설화를 고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각각 부처에 대한 사랑, 이물인 호랑이와의 사랑 등 인간과 인간 외의 존재와의 사랑으로 사랑의 다양한 모습과 사랑에 대한 신라인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번 공동 연구에서는 ‘설화’에서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을 추출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설화 자체를 사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전승 설화들의 비교·분석과 성·속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설화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해석도 있었겠지만 역사 연구의 대상 및 범위를 확장시켜 보고자 한 노력으로 널리 이해해 주길 바란다.

역사적 분석과 해석이 가해진 설화는 대중의 역사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고, 내러티브 역사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학, 인류학 등 인접 학문의 연구 성과에서 얻은 바가 많으므로 향후 인접 학문과의 공동 연구가 이루어질 기대한다.